

Public Nature of Christianity and Implic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in Maeul Ministry

Doil Kim^{*}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Abstract

PURPOSE Purpose is to find and restores the original place for Christianity that pursues public nature: Missional Ecclesiology for the Maeul(village) Ministry. Christian education implications of Maeul ministry were discussed in order to reclaim the essence of Christianity and earn respect and trust in society in detail.

CONTENTS Church is not a building or organization, but is the people of God. God is not just God of believers but of all creation. Therefore the church must concern for the community as stewards. This paper sought how Christian education processed in balancing out between individual conversion and nurture of family and society. It has gone through a long journey of both saving souls and reforming society. Maeul ministry is a practical collaboration between missiology and Christian education which is in the heart of God. To show an living example of public church, the Hongcheon-Doshimri Church was introduced. Maeul ministry impells crossing boundaries and it must be carried out with a spirituality in which action and meditation are harmonized. Maeul pastoral ministry must harmonize discipleship and citizenship, embrace the theology of marginality, and serve the people around us.

RESULTS Through critical reflection on ecclesiology and harsh evaluation of Christianity in the eyes of people outside the church, the need for genuine ecclesiological conversion is confirmed. Maeul ecclesiology will restore its original place and make the church will become a haven and brings hope in the world, and she will restore trust from society. By restoring the essence of a healthy church through Maeul ministry, the church will fulfill its mission as salt and light.

KEY WORDS Maeul Ministry, Public Theology, Missional Ecclesiology, Discipleship/Citizenship, Christian Education, Marginality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Corresponding to** Doil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E-mail : doilkim@puts.ac.k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s ©Korean Association for Religious Education

기독교의 공공성과 마을목회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김도일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본래 공공성을 추구하던 기독교의 제 자리를 찾는 것이다. 오늘날 사사화된 기독교의 현실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기독교의 공공성에 대한 신학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선교적 교회론을 토대로 한 마을목회가 기독교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다루고, 이를 위해 기독교교육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마을목회의 기독교교육적 함의를 논하였다.

연구 내용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본 연구는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신학적으로 밝혔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입증하였다. 이것이 바로 공공신학적 선교학의 핵심 토대가 되며, 기독교교육학도 역시 개인의 회심과 양육 사이의 긴장관계 속에 세워진 학문이다.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사회변혁을 위한 공공신학적 긴장관계가 오늘의 기독교교육학을 이루게 된 흐름도 더불어 살펴보았다. 마을목회는 선교신학과 기독교교육학의 조화로운 협력사역이다. 교회의 사역 대상은 온 마을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존재로 삶으로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기 위해, 기독교교육적 함의 세 가지를 밝혔다. 첫째, 마을목회는 경계넘기. 둘째, 마을목회는 행동과 목상이 조화된 영성. 셋째, 마을목회는 제자직과 시민직을 수행하며 주변인들을 섬겨야 한다.

결론 연구의 결론은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던 공공의 기독교의 모습은 어느덧 사라지고, 교회는 오랜세월 성장주의와 자본주의에 매몰되었기에 기독교의 교회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더불어 기독교에 대한 냉혹한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진정성있는 교회론적 회심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선교적 교회론을 실천하는 마을목회가 잃었던 흠어지는 교회의 회복,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는 교회, 신뢰를 회복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사회 속에서 건강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기독교의 공공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마을목회를 실천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공공성, 기독교교육, 마을목회, 선교적 교회, 제자직과 시민직, 주변성

I. 서 론

인류 전체가 고통을 당한 코로나-19는 한국에도 큰 상처를 남겼다. 나라 전체의 백성들이 큰 아픔을 겪는 가운데 기독교가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말해주는 조사 결과가 2021년에 실시되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코로나가 시작되던 2020년에 실시되었던 조사에서 한국교회의 대사회 신뢰도는 32%였는데 2021년에는 21%로 급락한 것이었다. 무려 1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년에는 32%, 21년에는 48%로 나타난 것을 보면 여간 심각한 것이 아니다(Christian Ethic Movement in Korea, 2020; Institute of Ministry Data, 2021).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삶의 의미, 방향, 목표를 제시해야 할 종교인 기독교가 고난의 시절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들의 잘못이 아니라 신뢰를 잃어버린 기독교와 기독교인들 특히 지도자들의 처신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통렬한 반성을 해야 함은 물론이고 철저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독교의 공공성 여부에 관한 것과 만일 기독교가 공공성을 가진 종교라면 어떤 존재로서 무슨 일을 추진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연구이다.

기독교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며 철저하게 공공성을 기본 바탕으로 삼는 종교이다.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의 가르침을 요약한 신약성경의 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이 구절을 읽는 이가 후반부의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는다는 부분만을 강조하고 신앙의 결과만을 강조하게 되면 개인의 내세 신앙에 주안점을 두게 되지만, 이 구절의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는 전반부에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위의 구절에서 말하는 세상은 조물주가 창조한 피조세계(κόσμος), 오이쿠메네(οἰκουμένη)를 일컫는 말로써 하나님은 ‘온세계를 사랑’하기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어 구원의 통로를 마련해 주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온누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성을 기본으로 하는 종교이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말하는 기쁜 소식을 사적인 복음으로만 축소하여 생각할 수 있으나, 이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 온 세상을 위한 공적 복음이라는 말이다. 기독교를 사사화(私事化)하는 것은 복음을 반쪽만 받아들이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복음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성경 전체를 이루고 있는 66권의 구약과 신약 전체가 공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은 천지의 창조주, 역사의 주인, 만물의 주인으로 표현되는 공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다.

오늘날 개신교가 사회로부터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목회자들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은 매우 개탄할만한 현상이다. 이는 개신교가 복음의 사적인 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회당 밖의 사람들을 전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대하였기 때문이다. 성자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영생

을 얻고 멸망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측면에 천착하였기에 야기된 것이다. 기독교는 온세상을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종교이다. 그러기에 당연히 세상을 향하여 공적 책임을 갖고 있다.

본 연구는 마을목회를 하나의 신뢰 회복을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마을목회는 기독교의 공공성을 인지하는 가운데 교회론의 올바른 이해에 터 하는 목회형태이다. 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객체 혹은 대상화하여 오로지 전도의 대상으로만 삼는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사랑 하는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사적이며 동시에 공적인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 사랑, 보살핌이 살아 숨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 해 나가야 한다는 정신을 실천하는 목회형태가 바로 마을목회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공공성을 바로 이해하고 마을사람들을 품고 사랑하며 말과 행실로 예수의 정신을 표현하는 존재의 목회를 실천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복음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라는 두 명제를 이 땅 위에서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마을목회를 수행해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쉽고 명료하게 복음의 사적/공적 특성을 이해고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아 교회됨의 사명을 실천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기독교가 본래의 본질적 특성인 공공성 회복을 위한 신학적 근거를 탐색하고, 공공성 회복의 일환으로 제시된 마을목회의 근간이 되는 선교적 교회론을 다루고 나서, 이를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마을목회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탐구와 더불어 실천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II. 공공신학과 공공신학적 기독교교육의 흐름

1. 공공신학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신자이며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한다.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초원에서 기도하며 돌을 쌓고 양을 치며 양과 같이 돌아다니며 물을 구하느라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건물로 된 교회의 개념이 없었다. 하늘 아래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단을 쌓으면 그곳이 제단이 되었고 그곳이 교회가 되었다. 그러다가 솔로몬 왕이 급기야 성전을 짓고 온갖 귀중한 것으로 장식을 하고 그곳에서 이른바 예식이 이루어지고 희생제물을 바치기 시작하면서 건물로 이루어진 성전이 교회의 개념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먼 곳에서 성전을 향해 순례를 하던 순례자들이 자신이 가진 물질을 바쳐 희생제물을 성전 입구에서 구입하게 되면서 일종의 상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틈을 타서 부정한 요소가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니 이곳으로 강도의 굴혈을 만들지

말라(Luk. 19:46)며 예수는 단호하게 채찍질로 성전청소를 단행했다. 당시 본질을 망각하고 종교를 통해 한몫 잡아 보려는 장사꾼들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결탁이 세상에 알려지고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예배를 드리고(레이투르기아), 설교를 하며(케리그마), 가르치고(디다케), 교제를 하려면(코이노니아) 예배당이 필요하고 어느 종교건 간에 신자가 함께 모여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크기의 건물과 큰 방이 필요하고, 사람이 모이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해야 하기에 식당과 부엌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직과 전문성을 가진 일꾼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그러기에 기독교도 건물과 조직이 필요하다. 예배당과 배움을 주고받는 교실이 필요한 건 당연하다. 그러나 초원에서 모여 예배하고 천막을 쳤다 거두어서 다시 물과 풀을 따라 떠났던 유목민과 같은 삶에서 모든 것이 유동적이고 일시적이었던 것처럼, 알고 보면 모든 인간의 삶이 그러하다.

기독교가 예배당 중심의 종교가 될 때 “모이는 행위”만을 강조하게 된다. 더욱이 예배당 건물을 과도하게 크게 건축해 놓고 나면 그 큰 방을 채우는 데 온 힘을 쏟게 된다. 그러나 예배당 울타리를 넘어서 담장 밖의 세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로 나아가는 “흠여지는” 기독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는 공공의 종교이다. 몽골의 변두리 비석에 새겨져 있는 돈유쿠쿠의 일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나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기독교의 공공신학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적 복음/공적 복음, 교회/사회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Ryu, 2021: 64). 이는 기독교의 영성을 설명할 때도 적용이 되는 원리이다. 기독교의 영성은 개인적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사적인데에 머무르지 않고 공적인 영역으로 확대된다는 의미이다. 이학준이 강조한 것처럼 공적 영성은 신비적인 영성과 반대되는 의미가 아니기에 사회 복음이라는 단어로 대체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신앙의 비밀스럽고 신비한 영적 경험들은 그것이 공동체 내에서 공적이며 보편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공적 영성은 하나님과의 신비롭고 친밀한 만남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Lee, 2014, 63; Ryu, 2021: 65 재인용).

공공신학이 지향하는 공공성(publicness)에 대하여 일찍이 데이비드 트레이시(David Tracy)가 주장한 세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성은 토론과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연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간의 존중하는 자세를 지향하는 가운데 소통하여야 한다. 둘째,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타 종교와의 진지한 대화를 나눌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기독교가 자기 공동체에서만 소통되는 언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셋째, 공공신학은 교회 밖 사회에서도 소통되는 영성의 깊이를 가져야 하며 공동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Tracy, 2014: 331-334). 공공신학이 지향하는 상호존중, 공적 삶 속에서의 의사소통, 그리고 공동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 속에서 실천할지에 대하여는 ‘기독교교육적 함의’에서 다룰 것이다.

트레이시와 같은 공공신학자들이 신학적 연구를 통해 공공신학의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세계개혁신교회연맹(WARC)과 같은 연합기관은 구체적으로 오늘날과 같은 전쟁과 불의와 생태계 파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시대에 교회가 사회 속에서 어떠한 분량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를 인식하고 배우고 고백하는 일련의 고백신앙의 과정을 통과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WARC가 아프리카 가나 아크라(Accra) 회의(23차 총회)에서 채택한 신앙고백문이 그러한 정신을 잘 표현해 주었다. 박성원은 WCRC에서 협력과 증언부서에서 봉사한 총무로서 이 고백 신앙문을 번역한 바 있다.

공공신학은 사변적인 이론(theory)에 국한되어 말로만 그치기를 거부한다. 오히려 실천(praxis)으로 나가는 과정과 실천을 중요시하며 신학은 상황 속에서 상황 속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러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예가 위에 언급한 아크라 신앙고백문이다. “경제와 창조 세계의 정의를 위한 계약”으로 명명된 고백문은 몇 가지 점에서 매우 주목할만하다.

첫째, 이 고백문은 비서구권 로컬(local)에서 서구권을 비롯한 전피조세계(global)를 향하고 전 피조세계와 함께 하고자 하는 일조의 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전에는 소위 서구권이 가정하는 넓은 글로벌 세계에서 주도권을 지니고 선언하며 지역(local)이 반응하는 모습을 띠었다면, 이제는 그와는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는 바, 로컬이 주창하고 글로벌이 반응하게 되는 일종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Paradigm Shift: From the global initiates and local responds to the local initiates and global responds). 이른바 세계화가 지역화를 좌지우지하던 패러다임에서 지역화가 세계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마을목회와의 일련의 연관성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본다.

둘째, 수백만 명의 흑인들을 노예로 만들어 아프리카에서 서구로 물건 팔 듯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노예무역의 엘미나성 근처의 가나 아크라에서 압제당하는 자의 결박을 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Isa. 58:6)을 떠올리며 신앙고백문을 세계에 공표한 것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셋째, 전세계 수입의 57% 이상을 1%도 안되는 소수의 부자가 갖고 있으며 아직도 빈곤과 착취가 상존하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무엇 그리고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고발이 이 고백문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이 모든 끝없는 경쟁, 소비, 착취와 축적 등을 부추기고 가능하게 한 신자유주의 경제 세계화로 인하여 지구는 온난화되고 생태계는 회생불가능의 상태로 망가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은 같이 신음하고 있으며, 있는자가 없는자를 객체화하고 배운자가 덜 배운자를 부리고 착취하며, 점점 더 양극화되어 가는 이 세상에서 교회는 더 이상 방관자나 동참자가 되어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혀서는 안되며 창조주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창조 세계를 섬기고 시스템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물려주겠다는 심정으로 만들어진 고백의 기도에 공명하며 참여하는 오늘

의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고 동조한다(Park, 2004: 232; Bae, 2021: 342-351).

공공신학은 교회당 안에 서 있는 교회만을 위한 신학이 아니라 광장에도 우뚝 서 있으며(볼프, 2014), 세상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며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 가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자 노력하는 신학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evangelization)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지구 마을(Glocal Community: Macul)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강조하는 공공신학의 실천자로 살아가야 한다.

2. 공공신학적 기독교교육의 흐름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교육은 인간의 삶에 늘 있었다. 하나님이 생태계를 만드시고 거기에 제일 나중 시점에 사람을 창조한 후,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붙이길 원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사람 아담 앞에 생물들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였다. 오늘날의 용어로 하면 소위 작명(naming)의 임무를 부여했다. 이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터인데, 아담은 자기 소견대로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지었고 곧 그가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되었다(창세기 2:19). 창조주가 이름을 지어서 사람으로 외우게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한 행위는 철저한 교육 행위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 안팎에서 자녀들에게 직간접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여호와와 규례와 법도를 전달하고자 노력했다. 문밖에 말씀을 걸고(메주자 הַזִּמְזָה), 이마와 손과 팔목 등에 붙이고 매어 다는 방법(테필린 תְּפִלִּין)을 마다하지 않고 가르침과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 쉼마 이스라엘(עַמּוּשׁ עִשְׂרָאֵל, 신명기 6장: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는 마음과 목숨과 힘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교육을 수행해 왔다. 이 가정교육이 회당교육으로 연결되었고, 오랜 세월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창조주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구도자들에 의해 구약으로 정리되고 훗날 예수의 이야기와 그를 따르던 제자들에 의하여 신약으로 정리되고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채택하여 오늘날 66권의 신구약 성경으로 묶여서 전달됐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의 창조 사건에서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의 종말론적 계시까지 성경은 기독교교육의 연속적인 사건 기록이라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신 창조주는 그와 함께 할 배필 하와를 지어 같이 지내게 하였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Gen. 2:24). 처음부터 사람은 사회적 존재로 시작되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생물을 관리하고 섬기라는 봉사의 사명을 받았다(Gen. 1:28). 구약학자 강사문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원어의 표현을 해석한 것처럼,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הָרָה: radah), 정복하라(שׁוּבִיכ: kabash)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동역자(cooperatio Dei)로서 하나님과 함께 자연을 정원사처럼 사랑하고 보살피며 서로를 보듬으라는 뜻이며, 파괴하기보다는 돌보고 관리하며 잘 지키라는 의미이다(Kang, 1997: 181-182; Kim, 2020: 72). 기독교교육은 본

래 인간을 동료 인간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로 이해하였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의 거의 반 이상을 집필한 사도 바울은 그가 고린도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표현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다(1 Cor. 6:1).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동료 인간을 업신여길 수 없으며 함부로 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회적인 존재인 것처럼, 모든 사람도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비로소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다.

기독교교육이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공적인 종교로서의 적합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인류가 존재한 이래로 학문 이전의 기독교교육적 행위가 존재하였으나 학문으로 자리를 잡은 역사는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분야라도 학문화되려면, 우리 삶에 오랫동안 있었던 개념들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연구공동체가 형성되고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 연구주제와 범위가 있어야 하며, 발표된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증하고 발전시키는 연구/실천공동체가 있어야 하며, 지식형성의 전통을 지니는 가운데 합의된 방법론과 연구 절차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학제 간 대화와 참여를 통해 지식 수정의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학문의 흐름과 깊이가 더 해지게 될 것이다(Moore, 1984: 89-90; Kim, 2013: 225). 이와 같은 전제조건을 만족시키면서도 기독교교육의 목적, 내용, 그리고 과정에 대한 객관적 비판과 합리화를 위한 증명의 과정을 통해 의미 부여 및 연결성을 모색해 가는 비판적 행위가 이어지면서 학문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의 인문과학적인 학문(discipline)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면서 기독교교육도 기독교교육학으로 불리우게 된 것이다(Eun, 2013: 150). 본 연구의 주제인 공공성이라는 주제로 살펴볼 때 현대 기독교교육학은 주일학교 운동 이후에 미국에서 형성된 회심 중심의 사적부흥운동에 반발한 일종의 공적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1780년 영국에서 발발한 주일학교운동은 훗날 미국 등을 복음화하려는 영국출신의 목회자들과 부흥사들을 통해 북아메리카로 전달되었다. 신문사를 경영하는 평신도 로버트 레익스에 의해 시작된 주일학교는 영국 전체의 불우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으며 초기에는 목회자들의 비웃음거리였으나 가난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어린이들이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배워 성경을 읽게 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과 경제생활을 할 기본 능력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사회인으로 자라날 준비가 되는 것을 본 종교지도자들은 저마다 앞다투어 주일에 실시되던 작은 학교를 교회에 도입하여 사회교육과 신앙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1810년 초에는 영국 안에서만 5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등록하였다. 린과 라이트의 표현처럼 주일학교는 작지만 엄청난 사회변혁에 이바지한 기관이었다. 19세기 초 이후 미국이라는 큰 땅에 복음화라는 사명을 갖고 건너갔던 이들은 당연히 영국의 주일학교 시스템도 더불어 갖고 들어갔다. 본래 사회계몽 성격을 갖고 보편적인 교육이 우선시되던 주일

학교가 전도와 영혼구원의 사명을 앞세우는 보수적인 목회자들과 열정적인 설교자들의 손에 들어가면서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었다.

호레이스 부쉬넬은 점진적이고 과정을 생략한 전도방식에 대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부쉬넬은 ‘급작스럽고 일회적인 회심’ 중심의 대각성운동이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헛필드와 같은 이들을 통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현상에 대하여 심각한 질문을 던졌다. 그러나 당장은 대각성 운동의 불길기 너무도 거세서 막아낼 길은 없었다. 미국 남동부는 회개와 즉각적인 회심이 대세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부쉬넬은 예일대의 법대를 나와 대각성운동의 뜨거움을 경험했으면서도 언약공동체가 회심을 경험한 어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며 세례를 통해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당장 회개와 회심의 경험이 없더라도 서서히 변화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가는 양육의 과정을 중요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Eun, 2013: 151-154). 부쉬넬의 이 ‘양육’ 사상은 회심의 필요성에 대한 반발로 여겨졌으며 당시 주류를 이루고 있던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지도자들에게는 일종의 반역과 같은 사상이었다. 부쉬넬은 여러 번 쫓겨날 위기에 처했지만 그가 평생 목회하던 회중교회의 교인들의 목숨을 건 사수로 인하여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1903년 시카고에서는 400여 명의 학자와 목회자들이 모여 종교교육학회(Religious Education Association)를 설립하였다. 이 때 존 듀이도 그 자리에 있었고 듀이에게 창립연설을 부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듀이는 자신의 비전에 따라 교육학회 앞에 종교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결국 듀이와 시카고와 뉴욕 등에서 늘 같이 가르쳤던 조지 앨버트 코우(George Albert Coe)가 교육에 의한 회심(Conversion by Education)이라는 당시 도발적인 제하의 연설로 종교교육학회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코우의 종교교육사회론은 다분히 대각성운동시 강조되었던 회심 일변도의 경향에 반기를 들었던 부쉬넬의 양육론(Christian Nurture)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으며, 비전문적인 주일학교교육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기독교는 사적인 경험으로만 이루어진 종교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공적인 면이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었다. 코우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반드시 사회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종교교육은 사회적 적응과 효율성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종교교육은 새로운 세계의 창조”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Coe, 2006: 8-48). 바로 이점이 오늘의 연구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코우는 종교교육이 결코 종교를 주입하는 강요에 있어서는 안 되며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하며 학습자로 하여금 사회적 사고, 즉 공적인 사고를 하게 도와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Coe, 2006: 78). 이후에도 종교교육학회는 오늘날까지 존재하며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며 기독교교육의 공적인 면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지평을 넓혀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 즉 ‘회심과 직접적인 가르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도 여전히 팽팽하게 그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Ⅲ. 선교적 교회론과 마을목회 사례

1. 마을목회의 신학과 실천의 토대로서 선교적 교회론

마을목회는 선교적 교회론에 터한 목회의 형태이며 목회의 자리(context)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살아가는 마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를 오이쿠메네로 부른다. 이는 교회 건물이 서 있는 울타리 안과 밖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선교적 교회론은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의 간학문적 대화와 협력으로 마을로 나아가는 실천을 가능케 하는 교회론이다. 한국일은 선교적 교회론의 출발을 바울의 교회에 대한 이해로 삼는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Eph. 1:23).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공동체와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생명공동체로 이해하면서 그 생명으로 인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약속공동체로 보는 것이다. 그러기에 교회는 세상 속에 거하면서 세상에 대하여 열린 관계를 가져야 하며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열린 자세라 함은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교회당 울타리 밖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기에 더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참여를 통해 변화를 지향하려는 실천적 의지와 행동을 가져야 한다. 한국일은 그러한 지향성을 ‘세상을 향한 운동성’이라는 말로 규정하였다(Han, 2018: 29-30). 마을목회의 교회론은 연구의 첫 섹션인 공공신학에서도 다룬 바 있다.

선교적 교회론을 신학으로 삼은 마을목회는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이다. 마을목회는 교회의 신뢰 회복과 진정성 전달을 위해 필요한 매우 중요한 통로이다. 교회가 아무리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하여도 정작 마을에 사는 이들이 그것을 전도를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랑과 봉사의 수고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실제 교회마다 노인 대학과 어린이집과 같은 노력이 많이 요구되는 일을 오랫동안 해 온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며 실제로 자녀들과 어르신들을 교회가 주관하는 기관에 보내기도 해 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교회의 성장 내지는 전도의 확장을 위한 일환으로만 비쳐졌기에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성 회복이 절실하다. 마을목회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목회는 목회자 주도의 목회가 아니라 성도 중심의 목회이며 주민 주도적인 상향식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마을목회는 소통과 의논하는 과정의 목회이다. 선언식 혹은 선포식 목회의 형태로는 마을목회를 시작조차 할 수 없다. 성도들 모두가 참여하고 의견을 모으는 민주적인 과정이 중요하다. 한마디로 이를 풀뿌리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마을목회는 목회자와 성도들이 마을 속에서 마을사람들을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것이다. 교회는 마을을 위해서(for) 존재한다는 시혜의식을 버려야 하고 마을과 함께(with)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

져야 할 것이다. 넷째, 마을목회는 기독교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공동체성을 회복하려는 운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들로 하여금 마을을 위해 헌신하게 하고 오랜 세월을 인내하면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마을사람들은 성도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기독교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며 보여주기식이나 전도하기 위해 사랑을 수단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을목회는 나-가정-교회-마을-세계로 연결되는 생명망을 중요시하는 목회이다. 그러므로 이 생명망 형성을 가능케하는 진정한 생태계의 회복을 꿈꾸는 목회가 바로 마을목회이다(Ro, 2018: 8-17).

2. 홍천 도심리교회: 마을목회 사례

마을목회는 마음목회이다. 마을목회는 사랑목회, 인내목회, 진정성목회이다. 강원도 홍천군 도심리교회는 홍동완이라는 소박하고 진실된 사람이 목사로 있는 교회이다. 그는 본래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여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선교사 훈련과 실습을 마친 그가 강원도로 들어가게 된 계기는 단순하다. 호주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던 중 선교사들의 갈등을 목격한 그는 해외 선교사의 꿈을 접게 되었고, 모국의 시골로 들어가 조용히 영적인 삶을 함께 하고자 했던 몇 가정이 뜻을 모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도심리 골짜기로 들어가려는 소식을 그곳에 오랫동안 살고 있던 지역의 주민들이 알고 그의 이사를 막고 나섰다.

마을의 통장과 터줏대감들이 그에게 막무가내로 물었던 질문은 “당신들 이곳에 오게 되면 교회를 시작하거나 요양병원 같은 걸 하려고 하지요?”였다. 그래서 “아닙니다. 저희는 교회를 하려고 홍천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절대로 말로 전도하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전도하면 안 된다고 하였고 일종의 각서를 쓰게 한 후 이사를 받아들였다. 홍목사는 혼잣말로 절대 말로는 전도하지 않으리라. 삶으로 전도하리라는 각오를 다졌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조금만 집을 얻어 살게 되었고 몇 년 동안 도심리의 마을사람으로 지냈다. 홍동완은 키가 작고 달변도 아니며 어떤 분야의 박사도 전문가도 아니다.

그러나 그는 마을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하는 예리한 감성과 공감 능력이 있었다. 그리고 마을사람들은 그가 진정 목사라는 사실을 살면서 느끼게 되었다. 시골은 대개 지하수를 끌어올려 물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지하수를 올리는 모터가 자주 고장났다. 그때마다 손재주가 있는 홍동완은 밤낮 가리지 않고 모터 고쳐주는 일을 하였고 마을사람들은 점점 그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한번은 마을에 노제가 있었는데, 마을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시작할 때 기도를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신인 하나님께 물어보았다. “하나님, 목사인 제가 노제에서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말하기를 “그저 가서 해주지 뭐가 어렵니?” 했단다. 그래서 그는 “천지의 주재이신 하나님, 우리 마을을 지켜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

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더니 마을사람들이 모두 “아멘” 했다는 얘기도 있다. 그는 그렇게 마을에 녹아 들어갔고 마을의 반장을 뽑을 때 만장일치로 뽑혀서 십 년 이상을 마을을 대표하게도 되었다고 한다. 그는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마을사람들과 같이 참여하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뽑히게 되었고 상금으로 마을도 가꾸고, 남은 돈으로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강릉 바닷가에 가서 회를 실컷 먹었다는 일화도 있다.

마을의 농사와 온갖 마을지키기 사업에 매진하며 모터도 고쳐주던 그에게 어떤 아낙네가 “동완이는 목사님인데 왜 교회를 안 하느냐”고 물었다. 그 때 그는 “제가 도심리에 들어올 때 교회를 설립하지 않고 전도를 안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했더니 그러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라도 목사님은 교회를 하지 말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할테니 동완이가 이제 목사님으로 우리가 세우는 교회에 부임하면 되지 않겠냐고 하여 그렇게 도심리교회가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는 말로 전도하거나 전도를 위하여 선행을 베풀지 않았고 같이 살며 진정한 마을사람으로 살며 사랑하고 진정성을 갖고 마을사람들과 같이 지냈더니 그를 마을사람들이 받아들였고 마을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다. 홍동완은 마을사람이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곰취나물과 각종 채소를 심고 유통하여 마을사람들의 자립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마을목회는 마음목회이며, 사랑·인내·진정성 목회라는 것을 홍천도심리교회의 예에서 확인할 수 있다(Hong, 2014).

IV. 마을목회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1. 마을목회는 경계 넘기

마을목회는 교회당의 벽을 넘어 모이는 교회로부터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 있는 삶을 추구하도록 격려하고 뒤에서 등을 밀어주는 목회이다. 벨 훅스(Bell Hooks)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교회당의 담을 넘어 세상으로 나가서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하고 그들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마을목회이다. 경계를 넘는다는 의미는 자신에게 익숙한 안전지대(comfort zone)을 탈출한다는 의미이며 고생을 자초한다는 의미이다(Hooks, Yoon trans., 2008: 47-58). 이는 파울로 프레이리가 얘기하는 진정한 해방을 실천하도록 가르친다(education for freedom)는 의미가 되겠다.

2. 마을목회는 행동과 목상이 조화된 영성

마을목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이 다른가?

‘선교하는’이라는 말은 선교를 일부러 행하는 선교(Doing Mission)이라고 보면, ‘선교적’이라는 표현은 존재로 하는 선교(Being Mission)에 가깝겠다. 선교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표현이며, 행함과 존재함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이는 파커 파머(Parker J. Palmer)가 표현한 것처럼, 행동과 목상이 조화된 영성을 추구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파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가 마귀에게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예로 들면서 기도하며 관조(contemplation)하기 위해 광야에 머물 때 마귀는 그에게로 와서 무언가를 행할 것을 종용했던 것이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 내 앞에 절하면 천하를 너에게 주겠다”로 예수를 시험했던 마귀의 책략은 예수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나누려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극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존재를 증명케 하려는 시험이었다(Palmer, 2013: 172-204). 관조하는 것은 행동을 멈추고 게으른 존재로 살아가려는 시도가 아니며,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일과 창조와 돌봄의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마을목회의 중요한 요점이 될 수도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다. 마을목회는 행동과 목상이 조화된 영성을 실천하는 것이다.

3. 마을목회는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육이며 주변성 신학 교육

마을목회는 교회가 세상의 소리를 경청하고 필요에 응답할 시민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기에 주변인 혹은 언저리에 살면서 신음하는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과 동시에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윤리 즉 사랑, 돌봄, 치유, 비폭력적 평화 추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함을 동시에 강조하는 목회이다.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는 늘 주변에서 살아가며 이등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늘 주변부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킨다는 신념을 가져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변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주변성 신학(Marginality Theology)이다. 하나님은 주변성 공동체를 통하여 진정한 교회상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창조적 변혁을 이루어 간다(Lee, 2014: 233). 마을목회를 수행하는 예수의 제자인 하나님의 백성은 ‘성벽 뒤의 언어’를 신실함과 순종의 정신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재해석하여 신앙공동체에서 예배하며 서로를 양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동시에 세상 속의 시민으로서 ‘성벽 위의 언어’를 바로 구사하여 기독교인이 시민으로 살아갈 능력을 잘 키워주어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다. 성벽 뒤와 위의 언어를 우리의 미래세대가 잘 구사할 수 있도록 제자교육과 시민교육의 조화를 이루어내는 이중언어교육에 소홀히 말아야 할 것이다(Little, 1999: 275-277).

4.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 함양과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교재개발과 공동체훈련의 필요성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타자를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공부를 통하여 실천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12주 신앙공동체훈련 교재가 적합해 보인다. 공생애를 시작하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기억하며 본 교재가 꾸며졌다. 한국 시민 사회 속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정의와 사랑(다문화), 공동선과 참여(정치), 포용과 기회(경제), 창조와 질서(생태)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토론허게 도와 주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공동체의 삶(시민정치), 생명과 위로(자살), 소명과 책임(직업), 새 하늘과 새 땅(가치있는 삶)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 실천해 나가는 공동체적 삶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또 다른 유익한 마을목회 교육과정은 <신앙의 여정>이라 명명된 미국장로교회의 입교-파송과정 프로그램이다. 이는 초신자와 기신자 모두에게 필요한 개혁신학의 정신을 함양하고 구체적인 신앙여정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교재이다. 이 교재는 다양한 연령이 같이 모여 게임과 수업을 통하여 주요 교리를 배우고 교회-노회-총회-마을 생태계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성경공부와 사회 속에서의 삶을 주제별로 다루며 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총체적인 제자/시민 훈련 과정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건강한 민주시민의 역량을 갖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교재의 집필 의도이며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토대이다. 이 교재로 필자는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인종과 연령의 사람들에게 교육하며 자세한 반응을 볼 수 있었다(PCUSA, 1996). 기독교에 입문한 이들을 위해 신앙의 여정 훈련을 시켜 세상으로 파송하는 이 교재가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활용되면 교회와 마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신앙생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V. 결 론

기독교 전래 초기에는 지역교회가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인생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게 하고 마을과 나라와 세계에 대한 의무를 가르쳤으며 진정한 글로벌 지구인으로 살아갈 길을 모색하게 하는 제자직과 시민직의 조화를 고민한 지도자들이 존재했었다고 본다. 일제 치하 속에서도 살신성인하여 독립정신을 일깨우고 자립하는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세대를 교육하고 마을사람들에게 본을 보였던 남강 이승훈, 최용신, 일가 김용기와 같은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으며, 진정한 마을목회를 선도했던 이들이었다. 지금과 비교해 보면 아주 적은 교육

만을 받았음에도 기독교의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실천했고, 사회 속에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데에 기여했다고 본다. 그러나 신학박사가 넘쳐나고 각 분야의 전문가가 널려있으며, 교회당이 곳곳에 있는 현실임에도 한국의 교회는 세간의 질시를 받고 있으며 신뢰는 땅에 떨어졌으니 이를 고칠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근본적인 잘못은 성장주의에 물든 사사화된 기독교와 교회론에 있었다. 무엇보다 비종교인의 시각에서 한국교회와 교인은 어떻게 비추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성찰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비종교인 김용우는 이렇게 말했다.

현대인은 현대문명에 지쳐 외롭고 힘들다. 위로받고 편안히 쉬고 싶고 이번 생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싶어 한다. 현대문명의 병폐에 시달린 몸과 마음을 위로와 희망이 없는 종교에 시달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 교회 밖 기독교인들은, 기성교회의 조직화된 교리 앞에 자신이 읽고 대화하고 있는 예수를 빼앗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 교리로 무장된 교회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물든 교회가 아니라, 예수를 탐구하고 예수를 사는 대안 공동체로 교회가 거듭나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필자와 같은 종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다시 볼 기회를 얻지 않겠나 싶다(Kim, 2021: 47).

본 연구는 선교적 교회론의 시각을 통하여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찰하고 우리가 사는 마을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아 보고자 시도되었다. 이제 교회당 울타리의 경계를 넘고 피곤한 이들이 들어와 쉴 수 있는 교회, 예수 안 믿는 마을 사람들도 뿌듯해하는 교회, 깊은 묵상과 적극적인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영성을 추구하는 교회, 신음하는 이웃이 찾아가고 싶은 진정한 예수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예수의 제자로, 세상의 시민으로 조화롭게 삶을 통합하는 교회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서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하신 세상을 예수의 제자인 신자들도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관심을 나눠주는 연습을 하여 지쳐 외롭고 쉼을 구하는 이들에게 쉼터가 되고 신뢰하고 싶은 작은 예수로 불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합체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연구를 마친다.

References

- Bushnell, H. *Christian Nurture*. 김도일 옮김 (2004). 기독교적 양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 Coe, G. A. *Social Religious Education*. 김도일 옮김 (2006). 종교교육사회론. 서울: 그루터기하우스.
- Hooks, B. *Teaching to Transgress*. 윤은진 옮김 (2008). 경계 넘기를 가르치기. 서울: 모티브북.
- Kang, S. M. (1997). Be Fruitful and Rule the Land. *Christianity Thoughts*, 41, 179-191.

- Kim, D. I. (2020). Christian Educatio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4, 51-79.
- Kim, D. I. et al. (2013). *Introduction to Christian Education*. Seoul: Kidokkyo Kyoyuk Yeonguwon.
- Kim, Y. W. (2021). Korean Churches and Christians from Non-Religious Person's Perspective. *Ministry and Rural Area*, 91, 37-47.
- Lee, J. Y. *Marginality*. 신재식 옮김 (2014). 마지널리티. 서울: 포이에마.
- Little, S. *Concluding Unscientific Postscript to the Philosophical Fragments*. Boys, M. C. (ed.). *Education for Discipleship and Citizenship*. 김도일 옮김 (1999). “비과학적인 후기로 결론을 지으며.” 메리 C. 보이스 엮음.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61-286.
- Lynn, R. W. & Wright, E. (1980). *The Big Little School: Two Hundred Years of the Sunday School*. Nashville: Religious Education Press.
- Melchert, C. (1994). What is Religious Education? Astley, J. & Francis, L. J. (eds.) *Critical Perspectives on Christian Education*. Harrisburg: Morehouse Publishing.
- Moore, A. J. (1984). Religious Education as a Discipline. Taylor, M. J. (ed.) *Changing Patterns of Religious Education*. Nashville: Abingdon Press, 89-90.
- Palmer, J. P. *Active Life: a Spirituality of Work, Creativity, and Caring*. 홍병룡 옮김 (2013). 일 · 창조 · 돌봄의 영성. 서울: 아바서원.
- Park, S. W. (2004). Covenant for Justice of Economy and Creation. *Ministry and Rural Area*, 24, 232-242.
- PCUSA Curriculum Development Center. 미국장로교총회교육부 한국어자료 개발실 옮김 (1996). 신앙의 여정: 입교와 파송.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 Tracy, D. (2014). Three Kinds of Publicness in Public Theology.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 8, 331-334.
- Volf, M. *A Public Faith*. 김명운 옮김 (2014). 광장에 선 기독교. 서울: IVP.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2020). “2020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 일반 국민 1000명 전화면접 조사. 2020.01.09.-11. (Translated in English) Christian Ethic Movement in Korea. Survey on Social Trust of Korean Churches in 2020. Retrived May 6, 2022 from https://cemk.org/cemk_wp/wp-content/uploads/2020/02/2020_%ED%95%9C%EA%B5%AD%EA%B5%90%ED%9A%8C%EC%8B%A0%EB%A2%B0%EB%8F%84%EC%A1%B0%EC%82%AC_%EC%9E%90%EB%A3%8C%EC%A7%91%EC%B5%9C%EC%A2%85.pdf.
- 노영상 (2018). “마을목회, 왜 하여야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을교회, 마을목회 실천편.

-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Ro, Y. S. (2018). *Why and How Shall We Perform Maeul Ministry?* Maeul Church, Maeul Ministry. Seoul: PCK Church Institute.
- 대한성서공회 (1962). 성경전서. 개역 한글판. 서울: 보진재. (Translated in English) Korean Bible Society (1962). *The Holy Bible, Hankul and Revised*. Seoul: Bojinjae.
- 류준영 (2021). “공공신학과 공적 영성.” 류영모 외. 공적 복음과 공공신학. 서울: 킹덤북스. (Translated in English) Ryu, J. Y. (2021). *Public Theology and Public Spirituality*. Ryu, Y. M. et al. *Public Theology and Public Gospel*. Seoul: Kingdom Books.
- 목회데이터연구소 (2021). “코로나-19 정부방역조치에 대한 일반 국민 평가 조사.” 국민 1000명 전화면접조사. 2021.01. (Translated in English) Survey on Evaluation by Ordinary People in Korea Toward Government Quarantine Measures for Covid 19. Retrived May 15, 2022 from http://mhdata.or.kr/mailling/Numbers82nd_210129_Full_Report.pdf. Institute of Ministry Data, 1-22.
- 배현주 (2021). 와서 보라: 글로컬 시대의 마을목회. 노영상 · 김도일 편. 마을을 품고 세상을 품고 세상을 살리는 프런티어 목회. 서울: 쿰란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Bae, H. J. (2021). *Come and See: Maeul Ministry in the Glocal Era*. In Ro, Y. S. & Kim, D. E. (eds.) *A Frontier Ministry that Embraces Maeul and the World*. Seoul: Kumran.
- 은준관 (2013). 교육신학. 서울: 한들. (Translated in English) Eun, J. K. (2013). *Theology of Education*. Seoul: Handle.
- 이학준 (2016). ST 747 한국교회를 위한 영성과 윤리. 파사데나: 풀러신학교 출판부. (Translated in English) Lee, H. J. (2016). *Ethics and Spirituality for Korean Churches*. Pasadena: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ress.
- 조성돈, 정재영, 김인옥, 장진원 (2013).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서울: 일상과 초월. (Translated in English) Cho, S. D., Chung, J. Y., Kim, I. O. & Chang, J. W. (2013) *Christians Who Dwell in the World*. Seoul: Everyday Life and Transcendence.
- 한국일 (2018). “마을목회의 이론적 근거로서 선교적 교회”. 노영상 엮음. 마을교회, 마을목회 이론편.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Translated in English) Han, K. I. (2018). *Missional Church as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Maeul Ministry*. In Ro. Y. S. (ed.) *Maeul Church and Maeul Ministry*, 19-39.
- 홍동완 (2014). “나의 미천한 선교이론.” 장로회신학대학교 채플 설교. (Translated in English) Hong, D. W. (2014). *My Lowly Mission Theory* (Sermon Video). Retrived May 6, 2022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v6CS6dIV2M> “산골동네 해결사 홍반장.” Retrived May 6, 2022 from <https://www.youtube.com/watch?v=RW1M1P4ubUE>.